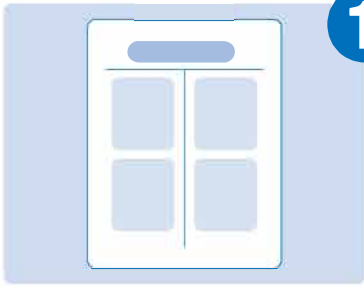


지문 하나가 아닌, 세트 전체로 접근하라

하루씩 오르다

독서

—
문제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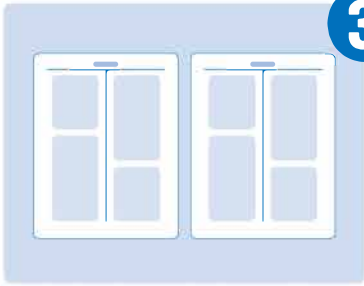
전 지문·문항 자체 개발을 통한 실전 대응력 강화

평가원의 출제 원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개발한 오르다 자체 제작 지문과 문항을 수록하였습니다. 기출 지문에 익숙해진 학습자가 낯선 지문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논리적 추론만으로 정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수능과 유사한 사고 밀도를 구현하였습니다.

**2**

하루 30분, 4주 완성의 체계적인 루틴 학습 설계

독해력의 핵심인 지속성을 위해 총 20세트의 독서 모의고사를 4주 완성 커리큘럼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지문 분석과 문항 풀이를 완결하는 일자별 훈련을 통해, 실전에서 요구되는 정보 처리 능력과 시간 운용 기술을 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3**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고난도 주제 통합 세트 집중 수록

문항 비중이 높고 텍스트 간 유기적 결합이 중요한 주제 통합 세트를 전략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동일한 화제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대조하고 종합하는 훈련을 통해 복합 지문의 구성 원리와 유형별 해결 전략을 습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사실적 독해부터 적용 및 창의까지 단계적 사고 훈련

단순 정보 확인을 넘어 문맥상 생략된 내용과 필자의 논거를 추론/비판하고, 나아가 복잡한 상황에 원리를 적용하는 적용 및 창의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문항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평가원의 의도를 깊이 있게 파악하는 실전적 독해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5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문 구성

인문·예술의 관점 비교, 사회·문화의 맥락 이해, 과학·기술의 원리 입증 등 각 영역에서 빈출되는 논리 전개 방식을 고루 담았습니다. 영역별로 상이한 독해 전략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실전적 감각을 익히고 실력을 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능 독서와 동일한 '4지문 17문항' 실전 호흡 집중 훈련 4주 완성

문제편

DAY 1

아루씩 오르다 독서

학습일 | 년 월 일 | 소요시간

• 이번 외화 구성

독서문	인문	과학기술
역력 단서 활용과 의미 설정	문맥이해와 중심	산문동위험소

• 함께 보면 좋은 기출

하루씩 오르다 DAY 1

국어 영

1. [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글을 읽다 보면 의미론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가 있다. 이때 주된 문맥에 포함된 정보를 활용하여 그 의미를 추정하는 것을 역력 단서의 활용이라 한다. 역력 단서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모르는 단어 근처에 비슷한 뜻을 가진 표현이 함께 쓰인 경우를 유의 단서라 하고, 반대로는 지반의 표현이 함께 쓰인 경우를 대조 단서라 한다. 또한 글에서 모르는 단어의 뜻을 직접 풀이할 수 있는 경우를 정의 단서라 한다. 이 밖에 독자가 일상에서 접은 경험이 단어의 의미를 짐작하는 데 바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경험 단서**라 한다. 경험 단서는 글의 직접 풀이와는 별개로 작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추론해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역력 단서를 활용하여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추정하는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독자는 먼저 모르는 단어의 앞뒤 문맥에서 의미를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찾는다. 다음으로, 앞뒤 단서를 바탕으로 짐작한 의미를 설정한다. 그런 다음 그 짐작한 의미를 해당 문맥에 대입하여 자연스럽게 읽히는지를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과소추진 없이, 반대로는 다른 단서를 다시 찾아보거나 추정한 의미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자의 배경지식이나 풍부한 어휘력도 적절한 단서를 선택하거나 수정하는 정확도에 기여한다.

역력 단서의 활용은 독사에서 이미 위에서 다루어 왔다.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읽기를 멈추지 않고 글의 흐름을 유지하며 넘어갈 수 있고, 문맥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추정한 경험이 쌓이면 어휘력이 점차 확장될 수 있다. 다만 글에서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독자의 배경지식이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의미가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역력 단서를 통해 추정한 의미는 이후에 사정이나 참고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력 단서의 활용과 사후 확인을 함께 실천하는 것은 글 읽기 능동적으로 읽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1. 밑줄에 대한 아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험 단서는 글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정보에 아닌 독자의 지식에서 찾아낸다.
 ②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짐작할 때 글에서 이미 제시된 경우를 정의 단서라 한다.
 ③ 모르는 단어를 활용하면 낯선 단어를 만나더라도 읽기의 흐름을 끊지 않아야 할 수 있다.

국어영역 DAY 1

4. [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문학적으로 유학에서 문학은 도(道)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여겼다. 주위를 비롯한 성리(性理)들은 문학이 도를 삼는 그곳이 되는 곳이었다(도(道)의 관행)라 관행(觀行)을 관행(觀行)이라 한 것만으로도 이 단락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단락을 이해할 때 도덕적 규범을 의미한다. 문학은 이러한 도를 드러내며 사람들을 교화하는 데 기여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문은 도를 삼는 그곳에 불과하므로, 화려한 수사나 기교에 치중하여 도를 배치는 것은 주제가 전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성리학의 상상론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하늘이 부여한 이치인 천리(天理)를 내재하고 있어 본래 순신하다. 그러나 현실 속의 인간은 기질(氣質)의 영향을 받아 사사로움 용망인 인욕(人慾)이 발생한다. 주희는 인욕이 천리를 (가)처럼 도를 인식하게 나 싶질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간의 이상적인 상태는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 기질을 변화시키고 인욕을 제거하여 천리를 보존하는 존천리거인욕(存天理去人慾)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양론은 성리학적 문학 창작론과 연결된다. 글은 작자의 마음이 바로 (나) 드러난 것이므로, 마음속에 인욕이 가득하다면 그 글은 도에서 벗어난 것이 된다. 따라서 훌륭한 문학의 선결 조건은 기교의 연마가 아니라 작자의 도덕적 수양이다. 성리학자들에게 글은 쓴다는 행위와 내면의 천리를 확인하고 이를 문자로 드러내어 타인에게 전달하는 실천이었다. 이들에게 문학이란 보편적 도를 구현함으로써 사회적 교화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했다.

(나)

성리학적 문예론이 지배적이던 명나라 말기, 이치는 당시 사대부들의 사회적 행태를 비판하며 새로운 문체론을 제시했다. 그는 사당파가 입소리는 인위(人工)를 탐하면서 실제로는 말없는 의식을 추구하는 가식적인 삶을 살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위선 속에서 만들어지는 문학 또한 거짓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지는 문학의 근원으로서 사물의 마음속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순수하고 거짓 없는 마음인 **진심(眞心)**을 제시했다.

이지에 따르면 동심은 외부의 간섭이 없는 최초의 일일이자 이치이다. 그러나 사람은 성장하면서 **진문(眞文)**을 통해 동제를 표현하고 사자적으로 통용되는 **도리(道理)**를 학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작자의 내면 수양이 문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는 문학의 창작 과정에 대해 비판을 바탕으로 문학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② (가)는 문학의 창작이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나)는 특정 작품의 창작 과정을 구체적 사례로 들어 (가)의 논리를 보완하고 있다.
 ③ (가)는 문학의 가치를 도의 실현과 연결 짓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는 기존의 문예론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문학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고전 경전의 권위를 인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학을 다가가야 할 도덕적 지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⑤ (가)는 이지에 차이를 위한 구체적인 독서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나)는 (가)에서 제시한 방법이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5. (가)의 '주희의 관례'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문헌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기보다 도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② 작자의 마음속에 인욕이 가득 차 있다면 그 글은 글로서 벗어난 상태가 된다.
 ③ 도덕적 수양은 문학 창작의 선결 조건이며, 글의 내용이 도를 향하여 변별되는 기준이 된다.
 ④ 표현의 기교보다 도를 드러내는 것이 문학의 본질적 목적이다.

해설편

1주차

DAY 1

백운 단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3

▶ **정답 및 해설**

① (가)는 작자의 내면 수양이 문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 규범을 문학 창작의 선결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나)도 문학의 사회적 효용성을 강조하지 않으며, (가)를 충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있다.

② (가)는 문학의 창작이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특정 작품의 창작 과정을 사례로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선결 조건을 설명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③ (나)는 유교 경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리(性理)가 사관(私見)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지에의 주장이다.

④ (가)의 '주희의 관례'는 문헌이 도(道)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여겼다고 보았다. 이지에 따르면 동심은 외부의 간섭이 없는 최초의 일일이자 이치이다. 그러나 사람은 성장하면서 진문(眞文)을 통해 동제를 표현하고 사자적으로 통용되는 도리(道理)를 학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4

▶ **정답 및 해설**

① (가)는 작자의 내면 수양이 문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 규범을 문학 창작의 선결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나)도 문학의 사회적 효용성을 강조하지 않으며, (가)를 충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있다.

② (가)는 문학의 창작이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특정 작품의 창작 과정을 사례로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선결 조건을 설명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③ (나)는 유교 경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리(性理)가 사관(私見)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지에의 주장이다.

④ (가)의 '주희의 관례'는 문헌이 도(道)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여겼다고 보았다. 이지에 따르면 동심은 외부의 간섭이 없는 최초의 일일이자 이치이다. 그러나 사람은 성장하면서 진문(眞文)을 통해 동제를 표현하고 사자적으로 통용되는 도리(道理)를 학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5

▶ **정답 및 해설**

① (가)는 작자의 내면 수양이 문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 규범을 문학 창작의 선결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나)도 문학의 사회적 효용성을 강조하지 않으며, (가)를 충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있다.

② (가)는 문학의 창작이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특정 작품의 창작 과정을 사례로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선결 조건을 설명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③ (나)는 유교 경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리(性理)가 사관(私見)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지에의 주장이다.

④ (가)의 '주희의 관례'는 문헌이 도(道)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여겼다고 보았다. 이지에 따르면 동심은 외부의 간섭이 없는 최초의 일일이자 이치이다. 그러나 사람은 성장하면서 진문(眞文)을 통해 동제를 표현하고 사자적으로 통용되는 도리(道理)를 학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1. 정답 및 해설

① (가)는 작자의 내면 수양이 문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 규범을 문학 창작의 선결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나)도 문학의 사회적 효용성을 강조하지 않으며, (가)를 충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있다.

② (가)는 문학의 창작이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특정 작품의 창작 과정을 사례로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선결 조건을 설명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③ (나)는 유교 경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리(性理)가 사관(私見)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지에의 주장이다.

④ (가)의 '주희의 관례'는 문헌이 도(道)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여겼다고 보았다. 이지에 따르면 동심은 외부의 간섭이 없는 최초의 일일이자 이치이다. 그러나 사람은 성장하면서 진문(眞文)을 통해 동제를 표현하고 사자적으로 통용되는 도리(道理)를 학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2. 정답 및 해설

① (가)는 작자의 내면 수양이 문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 규범을 문학 창작의 선결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나)도 문학의 사회적 효용성을 강조하지 않으며, (가)를 충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있다.

② (가)는 문학의 창작이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특정 작품의 창작 과정을 사례로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선결 조건을 설명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③ (나)는 유교 경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리(性理)가 사관(私見)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지에의 주장이다.

④ (가)의 '주희의 관례'는 문헌이 도(道)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여겼다고 보았다. 이지에 따르면 동심은 외부의 간섭이 없는 최초의 일일이자 이치이다. 그러나 사람은 성장하면서 진문(眞文)을 통해 동제를 표현하고 사자적으로 통용되는 도리(道理)를 학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오르다 독서 권장 풀이 시간, 왜 이렇게 설정했을까요?

수능 국어 시험 시간은 총 80분입니다. 이 중 OMR 마킹 및 검토와 선택과목·문학 풀이를 제외하면, 독서 영역에 투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은 35~40분 남짓입니다. 하루씩 오르다 독서는 20일간의 실전 훈련을 통해 마지노선을 넘어 가장 이상적인 '30분 돌파'를 달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습니다. 40분의 한계를 깨고 확보한 10분의 여유는 수능 당일 어떤 변수 앞에서도 등급을 지켜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풀이 시간

목표 : 빠른 독해 + 정확한 판단

상위권 변별을 위한 '킬러 지문'에서 고민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30분 안에 17문항을 돌파하면 헛갈리는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완벽한 1등급을 굳힐 수 있습니다.



실수를 없애는 실전 표준 페이스

목표 : 안정적 시간 운용

수능 독서 영역의 가장 이상적인 표준 소요 시간입니다. 지문당 8~9분씩 할당하여, 시간에 쫓겨서 나오는 어이없는 실수를 방지하고 정답률을 끌어올리는 훈련입니다.



'찍는 문제' 없는 완벽한 완주

목표 : 충분한 시간 내 문제 풀이 완료

학생들의 가장 큰 약점은 '시간 부족으로 마지막 지문을 통째로 찍는 것'입니다. 수능에서 독서 영역에 허락된 최대 마지노선인 40분 안에, 포기하는 지문 없이 끝까지 읽고 풀어내는 감각을 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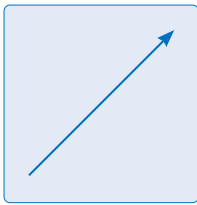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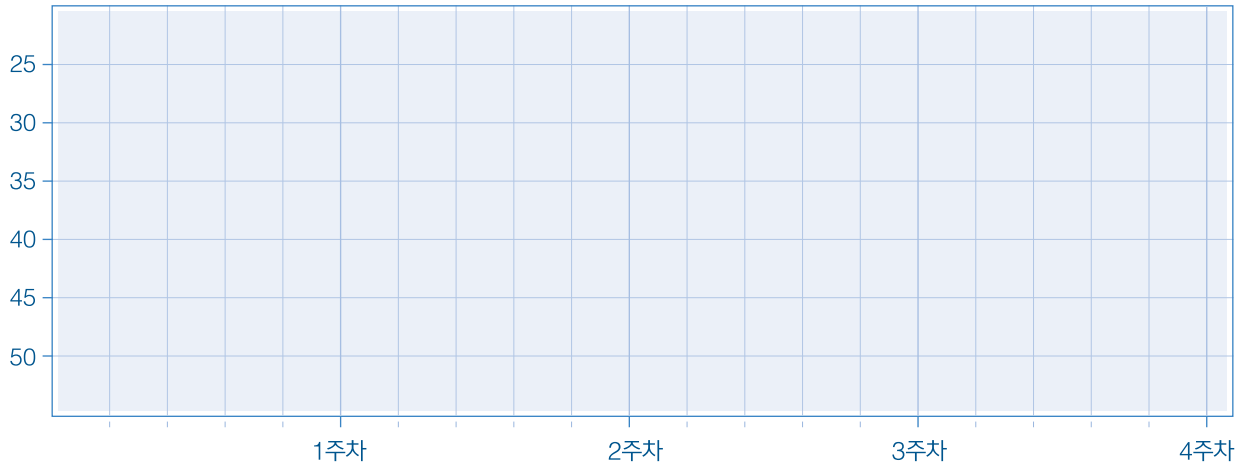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간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독서 영역에서 시간보다 중요한 건 정확성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시간부터 시작해, 정확도를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오르다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런 학생에게 추천해요

- 기출 분석을 끝내고 퀄리티 좋은 지문과 문항으로 연습하고 싶은 학생
- 매일 꾸준히 학습하지만 80분 봉투 모의고사는 부담스러운 학생
- 독서 영역을 집중적으로, 하지만 너무 무겁지 않게 훈련하고 싶은 학생
- 시험장에서 독서 시간 운용이 불안한 학생
- 독서 감각을 꾸준히 유지하고 싶은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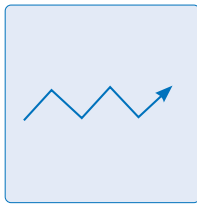
30분의 몰입으로 독서의 정점에 '오르다'

그래프의 흐름은 당신의 독해 컨디션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20일간의 기록을 보고 자신의 유형을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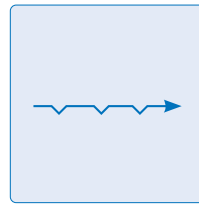
꾸준한 우상향형

가장 이상적인 흐름입니다! 평가원의 논리 흐름이 본인의 것으로 완벽히 체화되고 있습니다. 30분대에 안착했다면, 이제 시간 단축보다 오답 제로에 집중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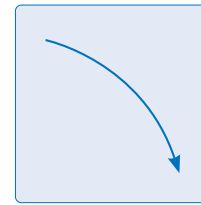
요동치는 능선형

특정 제재나 고난도 유형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날의 지문 제재를 확인하세요. 약점만 극복하면 최정상(30분)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정체된 평지형

본인이 편안함을 느끼는 풀이 속도에 갇혀, 무의식적으로 한계에 도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페이스에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를 극한의 환경에 밀어넣는 능동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정체된 벽을 뚫고 30분의 정상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하향 곡선형

하루 정도는 시간을 재지 말고 지문을 완벽히 씹어 먹는 정독 훈련으로 감각을 다시 정비하세요.

“

어떤 그래프든 괜찮습니다.

시간은 **정확한 독해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 오답을 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

CONTENTS

1주차

Day 1

맥락 단서 활용과 의미 추정	2026학년도 6월 [1~3]	p. 13
문이재도와 동심	2026학년도 9월 [4~9]	p. 14
산소동위원소	2024학년도 수능 [8~11]	p. 16
전용물소권	2024학년도 9월 [4~7]	p. 18

Day 2

독서 속도의 조절과 이해의 질	2026학년도 수능 [1~3]	p. 21
하이데거와 시몽동의 기술관	2022학년도 6월 [4~9]	p. 22
신호 발송 스펜스 모형	2025학년도 수능 [14~17]	p. 24
아쿠아포린	2015학년도 수능 A형 [16~19]	p. 26

Day 3

텍스트 유형 인식과 읽기 전략의 조정	2023학년도 6월 [1~3]	p. 29
투자 의사결정	2013학년도 수능 [39~45]	p. 30
LDO 레귤레이터	2014학년도 수능 A형 [28~30]	p. 32
최치원의 풍류도와 삼교회통	2023학년도 수능 [4~9]	p. 34

Day 4

요약하기 전략과 거시 구조	2022학년도 수능 [1~3]	p. 37
정의론	2026학년도 6월 [4~9]	p. 38
EUV 리소그래피	2013학년도 9월 [17~19]	p. 40
퀀트 투자	2024학년도 수능 [4~7]	p. 42

Day 5

메모와 의미 정교화	2025학년도 수능 [1~3]	p. 45
실마리 패러다임	2020학년도 9월 [21~26]	p. 46
MEMS 자이로스코프	2026학년도 9월 [14~17]	p. 48
신용할당	2024학년도 6월 [4~9]	p. 50

Day 6

독서 목적 설정과 읽기 조절	2024학년도 6월 [1~3]	p. 55
포스트휴머니즘	2023학년도 9월 [4~9]	p. 56
채권자취소권	2022학년도 6월 [10~13]	p. 58
양자 터널링	2018학년도 9월 [27~32]	p. 60

Day 7

시각화와 심상 형성	2025학년도 9월 [1~3]	p. 63
역사 서술론	2023학년도 6월 [4~9]	p. 64
금속-유기 골격체	2025학년도 6월 [8~11]	p. 66
외부효과와 코즈의 정리	2025학년도 9월 [4~7]	p. 68

Day 8

정서적 반응과 독서 이해	2022학년도 9월 [1~3]	p. 71
방법론적 해석학과 철학적 해석학	2022학년도 수능 [4~9]	p. 72
열활성 지연형광	2016학년도 수능 A형 [19~21]	p. 74
듀레이션과 채권 면역 전략	2011학년도 수능 [44~46]	p. 76

Day 9

재독과 이해의 심화	2023학년도 3월 [1~3]	p. 79
개입주의와 자생적 질서	2022학년도 9월 [4~9]	p. 80
라이다의 원리	2023학년도 9월 [14~17]	p. 82
허구의 역설	2021학년도 9월 [20~25]	p. 84

Day 10

오독 인식과 수정	2024학년도 수능 [1~3]	p. 87
시비 판단의 기준	2024학년도 수능 [12~17]	p. 88
원자현미경의 측정 원리	2024학년도 9월 [8~11]	p. 90
리카도 대등정리	2023학년도 6월 [14~17]	p. 92

CONTENTS

3주차

Day 11

목표 갱신과 이해의 전환	2021학년도 3월 [1~3]	p. 97
현상학적 공간론	2025학년도 9월 [12~17]	p. 98
스피큘 경피전달	2023학년도 6월 [10~13]	p. 100
보험 시장에서의 역선택	2026학년도 9월 [10~13]	p. 102

Day 12

작업 기억과 정보 통합	2023학년도 9월 [1~3]	p. 105
기억론	2026학년도 수능 [14~17]	p. 106
비대칭 수소화 반응	2024학년도 6월 [8~11]	p. 108
수의상환채권	2021학년도 수능 [26~30]	p. 110

Day 13

비판적 읽기의 방법과 태도	2022학년도 6월 [1~3]	p. 113
승고에 대한 견해	2025학년도 6월 [12~17]	p. 114
생체 직교 반응의 한계와 극복	2025학년도 수능 [10~13]	p. 116
무권대리	2016학년도 수능 B형 [25~28]	p. 118

Day 14

예측적 추론과 기대	2025학년도 6월 [1~3]	p. 121
정치 제도 개혁론	2024학년도 9월 [12~17]	p. 122
T세포 선별 과정	2022학년도 6월 [14~17]	p. 124
상계와 상계적상	2023학년도 수능 [10~13]	p. 126

Day 15

추론과 응집성 구성	2024학년도 9월 [1~3]	p. 129
덕 윤리학	2018학년도 수능 [16~19]	p. 130
신뢰보호의 원칙	2026학년도 수능 [4~9]	p. 132
EPR 역설	2012학년도 수능 [47~50]	p. 134

Day 16

자기 효능감과 읽기 성취	2022학년도 3월 [1~3]	p. 139
합리론과 경험론	2022학년도 9월 [10~13]	p. 140
STT-MRAM	2025학년도 9월 [8~11]	p. 142
환율 오버슈팅 모형	2018학년도 수능 [27~32]	p. 144

Day 17

선행 조직자와 읽기 준비	2027학년도 3월 [1~3]	p. 147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2019학년도 수능 [16~20]	p. 148
초임계 CO ₂ 추출	2026학년도 6월 [10~13]	p. 150
법치주의 딜레마와 예외상태	2026학년도 6월 [14~17]	p. 152

Day 18

관점 채택과 이해의 확장	2025학년도 3월 [1~3]	p. 155
역사철학	2013학년도 6월 [19~22]	p. 156
삭마냉각	2026학년도 수능 [10~13]	p. 158
표현대표이사 제도	2025학년도 6월 [4~7]	p. 160

Day 19

AI 시대 읽기와 해석적 의미 구성	2026학년도 9월 [1~3]	p. 163
심성론과 수양론	2025학년도 수능 [4~9]	p. 164
적응 광학	2022학년도 수능 [14~17]	p. 166
불가능한 삼위일체	2022학년도 수능 [10~13]	p. 168

Day 20

질문 생성과 이해 심화	2023학년도 수능 [1~3]	p. 171
과정주의 고고학과 탈과정주의 고고학	2024학년도 6월 [12~17]	p. 172
당절임과 수분활성도	2023학년도 수능 [14~17]	p. 174
채권자대위권	2023학년도 9월 [10~13]	p. 176

....

— 주차 —

DAY 1

하루씩 오르다 독서

학습일 | 년 월 일 소요시간 | :

• 이번 회차 구성

독서론	인문	과학기술	사회과학
맥락 단서 활용과 의미 추정	문이재도와 동심	산소동위원소	전용물소권

• 함께 보면 좋을 기출

2026학년도 6월 [1~3]	2026학년도 9월 [4~9]	2024학년도 수능 [8~11]	2024학년도 9월 [4~7]
---------------------	---------------------	----------------------	---------------------

하루씩 오르다 독서 DAY 1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을 읽다 보면 의미를 모르는 단어를 만날 때가 있다. 이때 주변 문맥에 포함된 정보를 활용하여 그 의미를 추정하는 것을 맥락 단서의 활용이라 한다. 맥락 단서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모르는 단어 근처에 비슷한 뜻을 지닌 표현이 함께 쓰인 경우를 유의 단서라 하고, 반대되는 의미의 표현이 함께 쓰인 경우를 대조 단서라 한다. 또한 글에서 모르는 단어의 뜻을 직접 풀어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를 정의 단서라 한다. 이 밖에 독자가 일상에서 쌓은 경험이 단어의 의미를 짐작하는 데 바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경험적 단서**라 한다. 경험적 단서는 글에 직접 드러나 있는 정보가 아니라 독자의 머릿속에 축적된 지식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앞의 세 유형과 구별된다.

맥락 단서를 활용하여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추정하는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독자는 먼저 모르는 단어의 앞뒤 문맥에서 의미를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찾는다. 다음으로, 발견한 단서를 바탕으로 잠정적인 의미를 설정한다. 그런 다음 그 잠정적 의미를 해당 문맥에 대입하여 자연스럽게 읽히는지를 점검한다. 이 점검에서 자연스럽게 않다고 판단하면 다른 단서를 다시 찾아보거나 추정한 의미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자의 배경지식이 풍부할수록 적절한 단서를 선택하기가 수월하여 추정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맥락 단서의 활용은 독서에서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된다.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읽기를 멈추지 않고 글의 흐름을 유지하며 읽어 나갈 수 있고, 문맥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경험이 쌓이면 어휘력이 점차 확장될 수 있다. 다만 글에 단서가 충분하지 않거나 독자의 배경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정한 의미가 부정확할 수 있다. 따라서 맥락 단서를 통해 추정한 의미는 이후에 사전이나 참고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맥락 단서의 활용과 사후 확인을 함께 실천하는 것은 글을 능동적으로 읽어 나가는 데 효과적이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험적 단서는 글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정보가 아닌 독자의 지식에 해당한다.
- ②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글에서 직접 풀이하여 제시한 경우를 정의 단서라 한다.
- ③ 맥락 단서를 활용하면 낯선 단어를 만나더라도 읽기의 흐름을 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 ④ 유의 단서, 대조 단서, 정의 단서, 경험적 단서는 모두 글에 직접 드러나 있는 정보이다.
- ⑤ 문맥을 통해 짐작한 단어의 뜻은 나중에 사전이나 참고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경험적 단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문맥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독자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는 단서이다.
- ② 독자가 지닌 배경지식이라는 점에서 유의 단서나 대조 단서와 성격이 다르다.
- ③ 독자가 생활 속에서 축적한 경험이 단어의 뜻을 추측하는 근거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④ 글에 나타난 유의어나 반의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 내면에 저장된 지식에 근거한다.
- ⑤ 배경지식이 부족한 독자라도 글에 나타난 경험적 단서를 찾아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3. 다음은 학생이 글을 읽으며 적은 독서 기록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함양’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겠다. …………… ㉠

↓

○ 앞 문장에 ‘기르다’라는 표현이 있으니, ‘함양’도 ‘기르다’와 비슷한 뜻일 것 같다. …………… ㉡

○ ‘함양’을 ‘기르다’로 바꿔 읽어 보니 문맥이 자연스럽다. …………… ㉢

↓

○ 그런데 마지막 문단에서 ‘함양’이 다시 나왔는데, 아까와 조금 다른 맥락이다. 주변에 ‘깊게 하다’라는 풀이가 붙어 있으니 ‘기르다’보다는 ‘깊게 하다’가 더 정확한 뜻인 것 같다. …………… ㉣

↓

○ 읽기를 마친 후 사전을 찾아보니 ‘함양’의 뜻은 ‘능력이나 품성 따위를 길러 쌓거나 갖추’이었다. 두 번째 추정에 더 가까웠다. …………… ㉤

- ① ㉠에서 학생은 의미를 모르는 단어를 만나, 맥락 단서를 활용할 상황에 놓였다.
- ② ㉡에서 학생은 ‘기르다’라는 유의 단서를 근거로 ‘함양’의 잠정적 의미를 설정하였다.
- ③ ㉢에서 학생은 추정한 의미를 문맥에 대입하여 자연스럽게 지 점검하였다.
- ④ ㉣에서 학생은 경험적 단서를 활용하여 앞서 추정한 의미를 수정하였다.
- ⑤ ㉤에서 학생은 추정한 의미를 사전을 통해 사후 확인하였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전통적으로 유학에서 문학은 도(道)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주희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은 문학이 도를 실는 그릇이라는 문이재도(文以載道)의 관점을 견지했다. 이들에게 도란 천지 만물의 보편적 이치이자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적 규범을 의미한다. 문학은 이러한 도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교화하는 데 기여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문은 도를 담은 그릇에 불과하므로, 화려한 수사나 기교에 치중하여 도를 해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성리학의 심성론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하늘이 부여한 이치인 천리(天理)를 내재하고 있어 본래 순선하다. 그러나 현실 속의 인간은 기질(氣質)의 영향을 받아 사사로운 욕망인 인욕(人慾)이 발생한다. 주희는 인욕이 천리를 ㉡가리면 도를 인식하거나 실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간의 이상적인 상태는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 기질을 변화시키고 인욕을 제거하여 천리를 보존하는 존천리거인욕(存天理去人慾)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양론은 성리학적 문학 창작론과 연결된다. 글은 작가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므로, 마음속에 인욕이 가득하다면 그 글은 도에서 벗어난 것이 된다. 따라서 훌륭한 문학의 선결 조건은 기교의 연마가 아니라 작가 자신의 도덕적 수양이다. 성리학자들에게 글을 쓴다는 행위는 내면의 천리를 확인하고 이를 문자로 드러내어 타인에게 전달하는 실천이었다. 이들에게 문학기란 보편적 진리인 도를 구현함으로써 사회적 교화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했다.

(나)

성리학적 문예관이 지배적이던 명나라 말기, 이지는 당시 사대부들의 위선적 행태를 비판하며 새로운 문학론을 제시했다. 그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인의도덕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가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위선 위에서 만들어지는 문학 또한 거짓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지는 문학의 근원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순수하고 거짓 없는 마음인 ㉣동심(童心)을 제시했다.

이지에 따르면 동심은 외부의 간섭이 없는 최초의 일념이자 진심이다. 그러나 사람은 성장하면서 견문(聞見)을 통해 지식을 ㉤쌓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도리(道理)를 학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주입된 견문과 도리가 마음의 주인이 되면 본래의 동심은 자리를 잃게 된다. 이지는 성리학에서 권장하는 독서와 공부가 오히려 동심을 가리고 사람을 위선적으로 만드는 원인이라고 ㉥파악했다. 그에게 도리나 규범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억압하는 것이며, 이를 따르는 것은 남의 말과 행동을 흉내 내는 거짓된 삶으로 이어질 뿐이었다.

동심을 잃은 자가 쓴 글은 아무리 형식이 완벽하다 해도 거짓된 것에 불과하다. 이지는 유교 경전인 육경이나 『논어』, 『맹자』 조차 사관이 윤색했거나 제자들이 잘못 기록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권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세속적인 사랑을 다룬 『서상기』나 『수호전』 같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작가의 꾸밈없는 정감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참된 문장이라고 보았다. 이지에게 문학의 가치는 도덕적 이념과의 합치 여부가 아니라, 작가의 내면을 얼마나 진실하게 드러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었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작가의 내면 수양이 문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경계하고 있으며, (나)는 문학의 사회적 효용성을 강조하여 (가)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 ② (가)는 문학의 형식이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나)는 특정 작품의 창작 과정을 구체적 사례로 들어 (가)의 논리를 보완하고 있다.
- ③ (가)는 문학의 가치를 도의 실현과 연결 짓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는 기존의 문예관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문학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고전 경전의 권위를 인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학이 나아가야 할 도덕적 지향점을 모색하고 있다.
- ⑤ (가)는 이상적 자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독서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나)는 (가)에서 제시한 방법이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를 규명하고 있다.

5. (가)의 ‘주희’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학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기보다 도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 ② 작가의 마음속에 인욕이 가득 차 있다면 그가 쓴 글도 도에서 벗어난 것이 된다.
- ③ 도덕적 수양은 문학 창작의 선결 조건이며, 글의 내용이 도에 부합하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 ④ 표현상의 기교보다 도를 드러내는 것이 문학의 본질적 목적이다.
- ⑤ 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작가는 인욕을 적절히 절제하고 이를 문학적 표현의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국어영역 DAY 1

6. (나)를 바탕으로 할 때, **동심(童心)**을 잃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순수한 마음이 내재적 성찰을 통해 강화되면서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단절되기 때문이다.
- ② 타고난 기질이 사회적 규범과 융합되면서 감정적인 동심이 이성적인 도리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 ③ 보고 듣는 과정에서 유입된 외부의 지식과 도리가 마음의 주인이 되면서 본래의 동심이 자리를 잃기 때문이다.
- ④ 인간의 욕망이 지나치게 억제되면서 사회적 규범을 따르려는 의지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 ⑤ 경전에 담긴 성인의 말씀을 깊이 있게 학습하는 과정에서 동심이 성숙한 형태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7. (나)의 관점에서 (가)의 내용을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강조하는 수양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억압하여 오히려 위선적인 사람을 만들 수 있다.
- ② (가)에서 추구하는 천리의 보존은 외부에서 주입된 도리에 불과하므로 동심을 가릴 수 있다.
- ③ (가)에서 문학의 모범으로 삼는 유교 경전은 후대 사람들에게 의해 윤색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④ (가)에서 경계하는 사사로운 욕망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문학의 진실한 표현의 원천으로 긍정되어야 한다.
- ⑤ (가)에서 권장하는 독서와 공부는 견문을 넓혀 줌으로써 잃어버린 동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갑: 근래 저자거리에 유행하는 통속 소설은 남녀 간의 정욕과 재물에 대한 탐욕을 가감 없이 묘사하고 있으니, 이는 실로 우려스러운 일ियो. 이러한 글은 독자의 사사로운 욕망을 부추길 뿐, 문학으로서의 도리(道理)를 다하지 못하고 있소. 모름지기 훌륭한 문학이란 독자에게 도덕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고,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 백성을 올바르게 이끄는 데 이바지해야 마땅한 법이요.

을: 그렇지 않소. 성현의 가르침을 답습하며 걸로만 도덕을 내세우는 명분뿐인 글보다, 인간의 본연을 드러낸 통속 소설이 오히려 문학적 가치가 높다고 보오. 비록 그 제재가 세속적일지라도, 억압되지 않은 인간의 감정을 가식 없이 담아냈기 때문이요. 인위적인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참된 진실함을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문학을 판가름하는 진정한 기준이라 할 수 있소.

- ① 주희의 견해에 의하면, 문학의 가치는 독자에게 미치는 도덕적 교화 효과에 달려 있으므로, 통속 소설이 독자에게 깨달음을 주지 못하고 욕망만을 자극한다는 갑의 판단은 옳겠군.
- ② 이지의 견해에 의하면 도리(道理)가 인간의 본성을 억압한다고 보므로, 걸로만 도덕적인 척하는 글보다 통속 소설이 훌륭하다는 을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 ③ 주희의 견해에 의하면, 걸로만 도덕적인 척하는 사대부의 글은 인욕(人慾)이 가득한 것이므로, 그러한 글보다 통속 소설이 훨씬 훌륭하다는 을의 입장은 옳겠군.
- ④ 이지의 견해에 의하면, 통속 소설이 사사로운 욕망을 다룬다 하더라도 그것이 꾸밈없는 정감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라면 긍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가치 없는 글로 보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 ⑤ 주희의 견해에 의하면, 문학의 선결 조건은 수양이므로, 규범에 얽매이지 않은 진실함이 문학의 기준이라는 을의 입장은 옳겠군.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거하면
- ② ㉡: 은폐하면
- ③ ㉢: 표출된
- ④ ㉣: 중첩하고
- ⑤ ㉤: 규명했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후 변화 연구에서 과거의 기온 데이터는 필수적이지만, 인류가 남긴 기상 관측 기록은 백여 년에 불과하다. 수십만 년에 이르는 지구의 기후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자연에 남겨진 간접적인 증거를 활용한다. 그중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물 분자를 구성하는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이다. 자연계의 산소는 대부분 질량수 16인 가벼운 산소로 존재하지만, 약 0.2%는 중성자 두 개가 더 많은 무거운 산소, 즉 산소-18로 존재한다. 이 둘은 화학적 성질은 같으나 질량이 달라 상태 변화 시 물리적 거동이 다른데, 이를 동위원소 분별 작용이라 한다. 시료의 산소-18과 산소-16의 비율을 표준 평균 해수와 비교하여 편차로 나타낸 값이 산소 동위원소 비($\delta^{18}\text{O}$)이다.

분별 작용은 물의 상태 변화 과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물 분자의 질량은 증기압에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어, 가벼운 산소를 포함한 물 분자는 무거운 산소를 포함한 물 분자보다 증발하기 쉽다. 반대로 수증기가 응결하여 물방울이 될 때는 무거운 산소를 포함한 수증기가 먼저 액체로 변한다. 따라서 바다에서 수증기가 증발할 때는 대기 중으로 가벼운 산소가 더 많이 유입되어 수증기의 $\delta^{18}\text{O}$ 값은 바닷물보다 낮게 형성된다. 반면 구름에서 비가 내릴 때는 무거운 산소가 빗물에 농축되어 먼저 제거되므로, 빗물의 $\delta^{18}\text{O}$ 값은 구름 속 수증기보다 높다.

[A] 이 원리는 적도에서 극지로 이동하는 수증기의 순환 과정에서 '레일리 증류' 모델로 설명된다. 적도 해양에서 증발한 공기 덩어리는 초기에는 해수보다 낮지만 비교적 높은 $\delta^{18}\text{O}$ 값을 가진다. 이 공기가 고위도로 이동하며 기온이 낮아지면 수증기의 포화 상태가 변하여 강수가 발생한다. 이때 무거운 산소가 빗물에 섞여 먼저 배출되고, 잔류한 수증기는 이전 단계보다 가벼운 산소의 비율이 높아진 상태가 된다. 공기가 극지방으로 이동할수록 이 과정이 반복되므로, 고위도 내륙이나 극지방에 도달한 수증기에서 내리는 눈은 적도 지역의 강수에 비해 $\delta^{18}\text{O}$ 값이 매우 낮다.

한편 지구의 기온 변화는 빙하 코어와 해양 퇴적물이라는 두 저장소에 서로 상반된 동위원소 기록을 남긴다. 빙하기와 같이 전 지구적 기온이 하강하면, 수증기가 극지로 이동하는 동안 분별 작용이 더 강하게 일어나 극지방에 쌓이는 눈의 $\delta^{18}\text{O}$ 값은 평소보다 더 낮아진다. 따라서 빙하 코어의 낮은 $\delta^{18}\text{O}$ 값은 한랭한 기후를 지시한다. 그런데 바다의 사정은 다르다. 증발하여 육지로 이동한 가벼운 산소가 거대한 빙하에 갇혀 바다로 돌아오지 못하면, 해양에는 무거운 산소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때 바닷물 속에서 껍질을 형성한 유공충은 당시 해수의 조성을 반영하므로, 유공충 화석의 높은 $\delta^{18}\text{O}$ 값은 오히려 빙하의 팽창과 한랭한 기후를 뜻한다. 이는 동일한 기후 사건이라 할지라도 분석 대상이 되는 저장소에 따라 데이터의 해석 방향이 반대가 됨을 보여 준다.

10.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계에 존재하는 산소 중 질량수가 18인 산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질량수가 16인 산소에 비해 매우 낮다.
- ② 바다에서 증발이 일어날 때 대기 중으로 유입되는 수증기의 $\delta^{18}\text{O}$ 값은 바닷물의 $\delta^{18}\text{O}$ 값보다 낮다.
- ③ 수증기가 응결하여 물방울이 되는 과정에서 가벼운 산소를 포함한 수증기가 먼저 액체로 변한다.
- ④ 가벼운 산소를 포함한 물 분자는 무거운 산소를 포함한 물 분자보다 증기압이 높아 더 쉽게 증발한다.
- ⑤ 산소 동위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은 같지만 질량이 달라 상태 변화 시 물리적 거동에 차이를 보인다.

11.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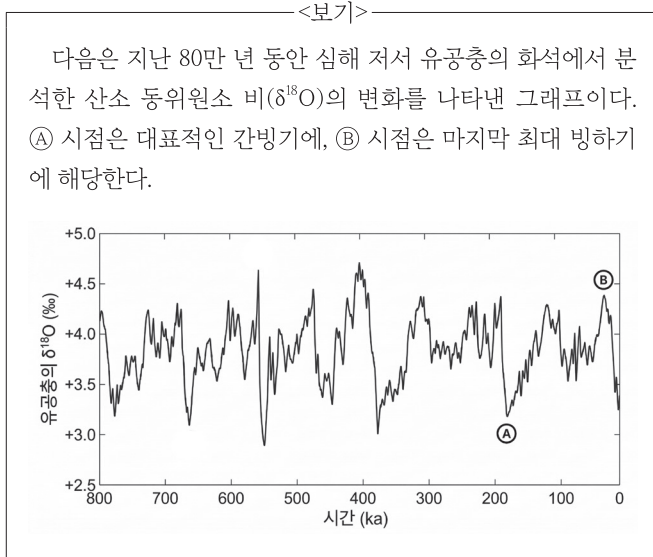
- ① 적도 해양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고위도로 이동하며 강수를 형성할 때, 빗물에는 수증기보다 가벼운 산소가 더 많이 포함된다.
- ② 공기 덩어리가 극지방으로 이동하며 기온이 낮아질수록, 잔류 수증기에서 무거운 산소의 비율은 점차 높아진다.
- ③ 고위도 내륙으로 갈수록 강수 후 수증기에 남은 가벼운 산소의 비율이 낮아져 극지방의 눈은 높은 $\delta^{18}\text{O}$ 값을 갖는다.
- ④ 적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강수가 반복될수록, 잔류 수증기의 $\delta^{18}\text{O}$ 값은 이전 단계보다 지속적으로 낮아진다.
- ⑤ 레일리 증류 모델에 따르면 기온이 하강하여 포화 상태가 변할 때 가벼운 산소가 무거운 산소보다 먼저 빗물로 배출된다.

12. 뒷글을 참고할 때, 빙하 코어와 해양 퇴적물의 동위원소 기록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 지구적 기온이 하강하는 시기에는 빙하 코어와 해양 퇴적물 모두에서 $\delta^{18}\text{O}$ 값이 낮아진다.
- ② 빙하기에는 해수에서 증발한 가벼운 산소가 빙하에 갇히므로, 바다에 무거운 산소의 비율이 높아져 유공충 화석의 $\delta^{18}\text{O}$ 값이 상승한다.
- ③ 온난한 기후에서는 극지로 이동하는 수증기의 분별 작용이 약해져 빙하 코어의 $\delta^{18}\text{O}$ 값이 낮아지고, 해양 퇴적물의 $\delta^{18}\text{O}$ 값은 높아진다.
- ④ 해양 퇴적물의 $\delta^{18}\text{O}$ 값이 높게 나타나는 시기는 해수의 온도가 높고 빙하의 규모가 축소된 간빙기에 해당한다.
- ⑤ 빙하 코어는 대기 중 수증기의 조성을 반영하고, 유공충 화석은 육상 빙하의 조성을 직접 반영하므로 두 기록은 같은 방향으로 변한다.

국어영역 DAY 1

13. 밑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자료를 해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 시점에서 ㉡ 시점으로 갈수록 육상 빙하의 부피가 감소하여, 바다로 되돌아오는 가벼운 산소의 양이 증가했을 것이다.
- ② ㉡ 시점에는 빙하가 녹아 가벼운 산소가 해양으로 유입되었으므로, ㉠ 시점보다 유공충 화석의 $\delta^{18}\text{O}$ 값이 높아진 것이다.
- ③ ㉡ 시점에 형성된 남극 빙하 코어의 $\delta^{18}\text{O}$ 값은 ㉠ 시점에 형성된 빙하 코어의 $\delta^{18}\text{O}$ 값보다 높을 것이다.
- ④ ㉠ 시점보다 ㉡ 시점에 적도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극지방까지 이동하는 동안 겪은 분별 작용이 더 강했을 것이다.
- ⑤ ㉡ 시점보다 유공충 화석의 $\delta^{18}\text{O}$ 값이 높은 것은 극지방에 내린 눈의 $\delta^{18}\text{O}$ 값이 ㉠ 시점보다 높아 바다로 유입된 물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특정인의 재산적 이익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 손실자와 이득자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공평의 원칙에 근거한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득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이득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

갑이 을과의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했는데, 그 결과 제3자인 병이 이득을 얻은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임차인 을이 임대인 병의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 수리업자 갑과 계약을 맺고 수리를 완료했으나, 을이 파산하여 갑에게 수리 대금을 ㉔ 지급할 수 없게 된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때 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병에게 직접 수리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㉕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갑이 직접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㉗ 전용물소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갑과 을 사이의 유효한 계약이 존재한다면 갑의 노무 제공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병이 얻은 이득은 갑의 손실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을과의 계약 이행에 따른 결과로 ㉘ 간주되기 때문이다. 병의 이득은 갑과의 관계가 아닌 을과의 관계를 통해 법률상 원인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만약 갑의 직접 청구를 허용한다면 병은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병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을에게 이미 어떠한 대가를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일 수 있는데, 갑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면 병은 이중으로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위험에 ㉙ 처한다. 또한 이는 자기 책임하에 계약을 체결한 갑이 계약 상대방인 을의 채무 지불 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제3자인 병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계약법의 기본 원리를 해칠 수 있다.

다만 병이 얻은 이득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한다. 만약 병이 을과의 계약 관계에서 수리비 상당을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이미 보전해 주었다면 병의 이득은 정당하다. 그러나 병이 을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이득을 향유했으며,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임이 입증된다면 공평의 원칙상 부당이득이 ㉚ 성립할 여지가 생긴다.

결국 법원은 계약 관계의 상대성을 존중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권리 구제의 범위를 결정한다. 전용물소권의 부정은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와 위험 부담의 원칙을 지키려는 사법적 판단의 결과이다. 이는 부당이득 제도가 단순히 손실의 전보를 넘어, 법적 안정성과 계약 질서의 보존이라는 상위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보여준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당사자 간의 재산적 불균형을 공평의 원칙에 따라 시정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 ② 계약 이행의 결과로 제3자가 이득을 얻었다라도 계약이 유효하다면 그 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③ 전용물소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계약 상대방의 채무 지불 능력 부족으로 인한 위험을 계약 당사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다.
- ④ 제3자가 얻은 이득이 법률상 원인이 없으려면 이득자와 손실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 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수리비에 상응하는 대가를 이미 지급했다면, 수리업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15. ㉗에 대한 법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약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계약 당사자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손실자가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손실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제3자가 보전해야 한다.
- ③ 제3자의 이득이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 이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손실자와 제3자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 ④ 계약법의 법적 안정성보다 실질적인 재산적 평등을 우선시하여 이득의 반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
- ⑤ 제3자가 무상으로 이득을 얻었다라도 계약 상대방의 채무 이행 능력이 있다면 전용물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국어영역 DAY 1

16. 밑글을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건설업자 A는 건물주 B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인테리어 업자 C의 부탁으로 자재를 납품하고 시공을 완료했다. 그러나 C는 B로부터 공사 대금 전액을 수령한 뒤 도주하여 A에게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B는 C에게 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불했으므로 건물의 가치 상승분은 자신의 정당한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A는 자신의 자재로 건물이 좋아졌으므로 B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 ① A와 C 사이의 유효한 자재 납품 계약이 존재한다면, A의 시공은 C에 대한 계약상 의무 이행이므로 B의 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겠군.
- ② B가 C에게 공사 대금을 이미 전액 지불했다면, B가 얻은 건물의 가치 상승분은 A의 손실로부터 직접 발생한 부당이득이라 보기 어렵겠군.
- ③ B가 A에게 별도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B는 동일한 공사에 대해 이중의 재산적 지출을 부담하게 되는 위험에 처하겠군.
- ④ A가 계약 상대방인 C의 채무 지불 능력 부족으로 인한 위험을 제3자인 B에게 전가하는 것은 자기 책임하에 계약을 체결한 원리에 부합하지 않겠군.
- ⑤ B가 무상으로 이득을 향유한 것이 아니더라도, C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B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A의 손실을 보전해야겠군.

17.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변제(辨濟)할
- ② ㉡: 요청(要請)할
- ③ ㉢: 의제(擬制)되기
- ④ ㉣: 직면(直面)한다
- ⑤ ㉤: 구비(具備)될

1주차

DAY 1

빠른 정답

1	④	2	⑤	3	④	4	③	5	⑤
6	③	7	⑤	8	④	9	④	10	③
11	④	12	②	13	④	14	④	15	③
16	⑤	17	⑤						

1

• 정답 및 해설

④ 1문단에서 경험적 단서는 “글에 직접 드러나 있는 정보가 아니라 독자의 머릿속에 축적된 지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의 단서, 대조 단서, 정의 단서는 글에 직접 드러난 정보이지만, 경험적 단서는 독자 내부의 지식이므로 네 유형 모두가 글에 직접 드러나 있다는 서술은 경험적 단서의 성격을 간과한 것이다.

• 오답 해설

- ① 1문단에서 경험적 단서는 “독자의 머릿속에 축적된 지식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글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정보가 아닌 독자의 지식이라는 서술과 부합한다.
- ② 1문단에서 “글에서 모르는 단어의 뜻을 직접 풀어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를 정의 단서라 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 ③ 3문단에서 맥락 단서 활용의 효용으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읽기를 멈추지 않고 글의 흐름을 유지하며 읽어 나갈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 ⑤ 3문단에서 “맥락 단서를 통해 추정한 의미는 이후에 사전이나 참고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2

• 정답 및 해설

⑤ 경험적 단서는 1문단에서 “글에 직접 드러나 있는 정보가 아니라 독자의 머릿속에 축적된 지식”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글에 나타난 경험적 단서를 찾으려면”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험적 단서는 글 밖, 독자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 글에서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2문단에서 “독자의 배경지식이 풍부할수록 적절한 단서를 선택하기가 수월하여 추정의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므로, 배경지식이 부족한 독자는 오히려 추정의 정확도가 낮아진다.

• 오답 해설

① 1문단에서 경험적 단서는 “독자가 일상에서 쌓은 경험이 단어의 의미를 짐작하는 데 바탕이 되는 경우”라 하였고, 글의 문맥이 아닌 독자의 경험에 기반한다는 서술과 부합한다.

- ② 경험적 단서가 독자의 배경지식이라는 점에서 글에 직접 드러나는 유의 단서나 대조 단서와 성격이 다르다는 내용은 1문단의 구별 논리와 일치한다.
- ③ 1문단에서 “독자가 일상에서 쌓은 경험이 단어의 의미를 짐작하는 데 바탕이 되는 경우”라는 정의와 부합한다.
- ④ 유의어나 반의어를 이용하는 것은 유의 단서·대조 단서에 해당하고, 경험적 단서는 독자 내면의 지식에 근거한다는 서술은 1문단의 구별 설명과 일치한다.

3

<보기> 설명

학생의 독서 기록은 맥락 단서를 활용한 의미 추정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 준다. ㉠에서 모르는 단어를 만나고, ㉢에서 앞 문장의 유사한 표현을 단서로 잠정적 의미를 설정하며, ㉡에서 대입 점검을 거친 뒤, ㉣에서 뜻풀이가 붙어 있는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여 의미를 수정하고, ㉤에서 사전으로 사후 확인하는 흐름이다. 풀이의 핵심은 ㉢과 ㉣에서 활용된 단서의 유형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 정답 및 해설

④ ㉠에서 학생은 “주변에 ‘깊게 하다’라는 풀이가 붙어 있으니”라고 기록하였다. 이는 글이 모르는 단어의 뜻을 직접 풀어 설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1문단의 정의에 따르면 정의 단서이다. 그런데 선지는 이를 경험적 단서라고 기술하고 있다. 경험적 단서는 글에 직접 드러나 있는 정보가 아니라 독자의 머릿속에 축적된 지식이므로, 글에 나타난 풀이를 근거로 의미를 수정한 ㉣의 단서와는 유형이 다르다.

• 오답 해설

- ① ㉠에서 학생은 ‘함양’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겠다고 기록하였으므로, 의미를 모르는 단어를 만나 맥락 단서를 활용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 ② ㉢에서 학생은 앞 문장에 있는 ‘기르다’라는 표현, 즉 비슷한 뜻을 지닌 표현을 단서로 활용하고 있다. 1문단에 따르면 이는 유의 단서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함양’의 잠정적 의미를 설정한 것이므로 2문단의 절차와 일치한다.
- ③ ㉡에서 학생은 추정한 의미를 해당 문맥에 대입하여 자연스럽게 읽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는 2문단에서 제시한 “잠정적 의미를 해당 문맥에 대입하여 자연스럽게 읽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 ⑤ ㉤에서 학생은 읽기를 마친 후 사전을 찾아 추정한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이는 3문단에서 권장하는 “사전이나 참고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사후 확인 과정에 해당한다.

4

• 정답 및 해설

③ (가)는 성리학의 문이재도(文以載道) 관점을 소개하며, 문학이 도를 실현하는 수단이자 사회적 교화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문학의 가치를 도의 실현과 연결 짓는 관점이 (가)의 핵심이다. (나)는 이지가 당시 성리학적 문예관의 위선을 비판하면서, 문학의 근원을 동심에 두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문예관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학적 기준을 세운다는 서술이 (나)의 전개 방식과 일치한다.

• 오답 해설

- ① (가)는 작가의 내면 수양이 문학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 수양을 문학 창작의 선결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나)도 문학의 사회적 효용성을 강조하지 않으며, (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있다.
- ② (가)는 형식이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담는 것이 문학의 목적이라는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나)도 특정 작품의 창작 과정을 사례로 들어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진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유교 경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지는 육경이나 “논어”, “맹자”조차 사관이 윤색했거나 제자들이 잘못 기록한 것일 수 있다고 하여 경전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⑤ (가)에 구체적인 독서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나)는 (가)의 방법이 실현 불가능한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근본 전제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

5

• 정답 및 해설

⑤ (가) 2문단에서 주희는 인욕(人慾)을 제거하여 천리를 보존하는 존천리거인욕(存天理去人慾)의 경지를 이상적 상태로 제시하고 있다. 인욕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지 “적절히 절제하여 활용”할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인욕을 문학적 표현의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서술은 인욕의 긍정적 활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인욕의 완전한 제거를 주장하는 주희의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 오답 해설

- ① (가) 1문단에서 문학은 “도를 신는 그릇”이라 하였고, “도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교화하는 데 기여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문학이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기보다 도의 실현 수단이라는 서술은 문이재도 관점과 부합한다.
- ② (가) 3문단에서 “마음속에 인욕이 가득하다면 그 글은 도에서 벗어난 것이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 ③ (가) 3문단에서 “훌륭한 문학의 선결 조건은 기교의 연마가 아니라 작가 자신의 도덕적 수양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수양을 통해 마음속 천리를 확인하고 이를 드러내는 것이 글쓰기의 목적이므로 도에 부합하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④ (가) 1문단에서 “화려한 수사나 기교에 치중하여 도를 해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 하였으므로, 기교보다 도를 드러내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라는 서술과 일치한다.

6

• 정답 및 해설

③ (나) 2문단에 따르면, 사람은 성장하면서 “견문을 통해 지식을 쌓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도리를 학습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주입된 견문과 도리가 마음의 주인이 되면 본래의 동심은 자리를 잃게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보고 듣는 과정에서 유입된 외부의 지식과 도리가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서 동심이 밀려나는 것이므로, 이 과정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 오답 해설

- ① 동심을 잃는 원인은 내재적 성찰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견문과 도리의 유입이다. 동심이 내재적 성찰을 통해 강화된다는 내용은 지문에 없으며,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단절된다는 서술도 지문과 무관하다.
- ② 동심이 도리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나) 2문단에서 동심은 외부의 견문과 도리에 의해 “자리를 잃”는 것이지, 감정이 이성으로 전환된다는 서술은 없다. 또한 “타고난 기질이 사회적 규범과 융합”된다는 내용도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이지는 인간의 욕망이 지나치게 억제되어 규범 의지가 약화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리학이 외부에서 도리를 주입하여 동심을 가린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욕망의 억제와 규범 의지의 관계는 지문에서 다루지 않는다.
- ⑤ 이지에게 동심은 “성숙한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간섭에 의해 “자리를 잃”는 것이다. 경전 학습이 동심을 발전시킨다는 서술은 이지의 관점과 정반대이다.

7

• 정답 및 해설

⑤ 이지는 (나) 2문단에서 “성리학에서 권장하는 독서와 공부에 오히려 동심을 가리고 사람을 위선적으로 만드는 원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지의 관점에서 (가)에서 권장하는 독서와 공부는 동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심을 가리는 원인이다. “잃어버린 동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서술은 이지의 관점과 정반대 방향의 평가이다.

• 오답 해설

- ① 이지는 (나) 2문단에서 “도리나 규범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억압하는 것”이라 보았다. (가)에서 강조하는 수양(존천리거인욕)은 인욕을 제거하고 규범적 질서를 따르게 하는 것이므로, 이지의 관점에서 이는 자연스러운 본성을 억압하여 위선을 낳는 것으로 평가된다.
- ② 이지의 관점에서 성리학이 보존하려는 천리는 “외부로부터 주입된 견문과 도리”의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외부적 도리가 마음

의 주인이 되면 동심이 자리를 잃게 되므로, 천리의 보존이 동심을 가릴 수 있다는 평가는 이지의 논리에 부합한다.

- ③ 이지는 (나) 3문단에서 “육경이나 ‘논어’, ‘맹자’조차 사관이 윤색했거나 제자들이 잘못 기록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전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므로, (가)에서 모범으로 삼는 유교 경전이 윤색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은 이지의 관점에 부합한다.
- ④ (가)에서 인욕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지만, 이지는 규범에 의해 억압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감정을 문학의 진실한 표현의 원천으로 긍정한다. “서상기”나 “수호전”처럼 세속적 사랑을 다루더라도 꾸밈없는 정감이 담겨 있으면 참된 문장이라고 본 이지의 논리에 비추어,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 대상이 아니라 문학적 원천으로 긍정해야 한다는 평가는 적절하다.

8

<보기> 설명

갑은 통속 소설이 사사로운 욕망을 자극할 뿐이므로 문학적 가치가 없다고 보면서, 문학은 도덕적 깨달음과 교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은 걸로만 도덕적인 척하는 사대부의 글보다 억압되지 않은 인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담은 통속 소설이 더 훌륭하다고 주장한다. 이 보기를 풀기 위해서는 갑의 입장을 주희의 문이재도 관점, 을의 입장을 이지의 동심 관점에 대응시킨 뒤, 각 선지의 관점 귀속과 판단 방향이 올바른지를 확인해야 한다.

• 정답 및 해설

- ④ 이지는 (나) 3문단에서 “세속적인 사랑을 다룬 ‘서상기’나 ‘수호전’ 같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작가의 꾸밈없는 정감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참된 문장”이라고 보았다. 통속 소설이 사사로운 욕망을 소재로 삼더라도 그것이 억압되지 않은 진실한 정감의 발현이라면 이지의 관점에서 긍정될 수 있다. 따라서 통속 소설의 내용이 세속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치가 없다고 보는 갑의 입장은 이지의 기준에서 옳지 않은 것이다.

• 오답 해설

- ① 주희의 관점에서 문학은 “도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교화하는 데 기여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갑이 통속 소설이 욕망을 자극할 뿐이므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도를 해치는 문학을 경계하는 주희의 관점에서 방향이 일치한다.
- ② 이지의 관점에서 을의 입장은 옳다. 이지는 꾸밈없는 정감이 담긴 글이 참된 문장이라 보았으므로, 진실한 감정을 솔직하게 담은 통속 소설이 위선적인 글보다 훌륭하다는 을의 주장은 이지의 논리에 부합한다.
- ③ 주희의 관점에서 걸로만 도덕적인 척하는 사대부의 글에 인욕이 가득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속 소설이 “훨씬 훌륭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주희에게 통속 소설 역시 욕망을 자극하여 도를 해치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 ⑤ 주희의 관점에서 문학의 선결 조건은 도덕적 수양이며, 문학은 도를 담아야 한다. 규범에 얽매이지 않은 진실함이 문학의 기준이라는 을의 입장은 도덕적 수양을 선결 조건으로 두는 주희의 관점과 배치되므로, 주희의 입장에서 을의 주장은 옳지 않다.

9

• 정답 및 해설

- ④ ㉠의 ‘쌓고’는 “견문을 통해 지식을 쌓고”라는 문맥에서 ‘차곡차곡 모으다, 축적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중첩하고’는 ‘여러 겹으로 겹치다, 포개다’의 의미로, 지식이 점차 누적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쌓고’와는 의미가 다르다.

• 오답 해설

- ① ㉡의 ‘따르면’은 “성리학의 심성론에 따르면”이라는 문맥에서 ‘어떤 것에 근거하면’의 의미로 쓰였다. ‘의거하면’은 ‘어떤 것을 근거로 삼으면’의 의미로, 바꾸어 써도 문맥상 의미가 동일하다.
- ② ㉢의 ‘가리면’은 “인욕이 천리를 가리면”이라는 문맥에서 ‘보이지 않게 덮거나 막다’의 의미로 쓰였다. ‘은폐하면’은 ‘드러나지 않게 감추다’의 의미로, 인욕에 의해 천리가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데 바꾸어 쓸 수 있다.
- ③ ㉣의 ‘드러난’은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므로”라는 문맥에서 ‘안에 있던 것이 걸로 나타난’의 의미로 쓰였다. ‘표출된’은 ‘걸로 나타내어진’의 의미로, 내면의 마음이 글이라는 형태로 밖에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는 데 바꾸어 쓸 수 있다.
- ⑤ ㉤의 ‘파악했다’는 “원인이라고 파악했다”라는 문맥에서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성질을 확실히 이해하여 알다’의 의미로 쓰였다. ‘규명했다’는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밝혀내다’의 의미로, 이지가 독서와 공부로 동심 상실의 원인으로 밝혀냈다는 뜻에서 바꾸어 쓸 수 있다.

10

• 정답 및 해설

- ③ 2문단에서 “수증기가 응결하여 물방울이 될 때는 무거운 산소를 포함한 수증기가 먼저 액체로 변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선지는 “가벼운 산소를 포함한 수증기가 먼저 액체로 변한다”고 반대로 서술하고 있다. 응결 과정에서는 질량이 큰 무거운 산소 쪽이 먼저 액체로 전환되므로, 가벼운 산소가 먼저 변한다는 서술은 분별 작용의 원리에 어긋난다.

• 오답 해설

- ① 1문단에서 자연계의 산소는 “대부분 질량수 16인 가벼운 산소로 존재하지만, 약 0.2%는 ... 산소-18로 존재한다”고 하였으므로, 산소-18의 비율이 산소-16에 비해 매우 낮다는 서술과 일치한다.
- ② 2문단에서 “바다에서 수증기가 증발할 때는 대기 중으로 가벼운 산소가 더 많이 유입되어 수증기의 δ¹⁸O 값은 바닷물보다 낮게 형성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 ④ 2문단에서 “물 분자의 질량은 증기압에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어, 가벼운 산소를 포함한 물 분자는 무거운 산소를 포함한 물 분자보다 증발하기 쉽다”고 하였다. 질량이 가벼우면 증기압이 높고 더 쉽게 증발하므로 선지의 서술과 부합한다.
- ⑤ 1문단에서 산소-16과 산소-18은 “화학적 성질은 같으나 질량이 달라 상태 변화 시 물리적 거동이 다른데, 이를 동위원소 분별 작용이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11

• 정답 및 해설

- ④ [A]에서 적도 해양에서 증발한 공기 덩어리가 고위도로 이동하며 강수가 발생할 때, “무거운 산소가 빗물에 섞여 먼저 배출되고, 잔류한 수증기는 이전 단계보다 가벼운 산소의 비율이 높아진 상태가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강수가 반복될 때마다 무거운 산소가 빗물로 빠져나가므로, 잔류 수증기에서 산소-18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delta^{18}\text{O}$ 값은 이전 단계보다 지속적으로 낮아진다.

• 오답 해설

- ① [A]에서 강수가 발생할 때 무거운 산소가 빗물에 섞여 먼저 배출된다고 하였다. 빗물에 가벼운 산소가 더 많이 포함된다는 것은 분별 작용의 원리와 반대이다.
- ② [A]에서 강수가 반복될수록 잔류 수증기에서 가벼운 산소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무거운 산소의 비율이 점차 낮아진다는 뜻이므로, 무거운 산소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서술과 방향이 반대이다.
- ③ 가벼운 산소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이다. 극지방의 눈은 반복적 분별 작용을 거친 수증기에서 내리므로 $\delta^{18}\text{O}$ 값이 매우 낮다.
- ⑤ 기온이 하강하여 강수가 발생할 때 빗물로 먼저 배출되는 것은 무거운 산소이다. 가벼운 산소가 먼저 배출된다는 서술은 분별 작용의 원리와 반대이다.

12

• 정답 및 해설

- ② 4문단에서 빙하기에는 “증발하여 육지로 이동한 가벼운 산소가 거대한 빙하에 갇혀 바다로 돌아오지 못하면, 해양에는 무거운 산소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바닷물 속에서 껍질을 형성한 유공충은 당시 해수의 조성을 반영하므로, 유공충 화석의 높은 $\delta^{18}\text{O}$ 값은 오히려 빙하의 팽창과 한랭한 기후를 뜻한다”고 하였다. 가벼운 산소가 빙하에 갇힌 결과 해수에서 무거운 산소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를 반영한 유공충 화석의 $\delta^{18}\text{O}$ 값이 상승하는 것이다.

• 오답 해설

- ① 4문단에서 빙하기에 빙하 코어의 $\delta^{18}\text{O}$ 값은 낮아지지만, 해양 퇴적물(유공충 화석)의 $\delta^{18}\text{O}$ 값은 높아진다. 두 저장소의 $\delta^{18}\text{O}$ 값이 같은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은 4문단에서 강조한 “분석 대상이

되는 저장소에 따라 데이터의 해석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원리에 어긋난다.

- ③ 온난한 기후에서는 분별 작용이 약화되어 극지 눈의 $\delta^{18}\text{O}$ 값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빙하 코어의 $\delta^{18}\text{O}$ 값은 높아진다. 또한 빙하가 녹아 가벼운 산소가 바다로 유입되면 해수의 무거운 산소 비율이 낮아져 해양 퇴적물의 $\delta^{18}\text{O}$ 값은 낮아진다. 선지는 두 방향을 모두 반대로 기술하고 있다.
- ④ 해양 퇴적물의 $\delta^{18}\text{O}$ 값이 높은 시기는 빙하가 팽창하고 기온이 낮은 빙하기에 해당한다. 해수 온도가 높고 빙하가 축적된 간빙기에는 $\delta^{18}\text{O}$ 값이 오히려 낮아지므로, 선지의 서술은 방향이 반대이다.
- ⑤ 유공충 화석은 당시 해수의 조성을 반영하는 것이지 육상 빙하의 조성을 직접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빙하에 갇힌 가벼운 산소가 해수 조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빙하 코어와 유공충 화석의 기록은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13

<보기> 설명

심해 저서 유공충의 화석에서 분석한 $\delta^{18}\text{O}$ 변화 그래프가 주어졌다. ㉠ 시점은 간빙기로 유공충의 $\delta^{18}\text{O}$ 값이 가장 낮고, ㉡ 시점은 최대 빙하기로 $\delta^{18}\text{O}$ 값이 가장 높다. 이 보기를 해석하려면 4문단에서 설명한 빙하기·간빙기에 따른 해양 퇴적물의 $\delta^{18}\text{O}$ 변화 원리와, 3문단에서 설명한 분별 작용의 강도 변화를 적용해야 한다.

• 정답 및 해설

- ④ 4문단에서 “빙하기와 같이 전 지구적 기온이 하강하면, 수증기가 극지로 이동하는 동안 분별 작용이 더 강하게 일어나”라고 서술하고 있다. ㉡ 시점은 최대 빙하기에 해당하여 기온이 크게 하강한 시기이고, ㉠ 시점은 간빙기에 해당한다. 기온이 더 낮은 ㉡ 시점에서 적도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극지방까지 이동하는 동안 겪는 분별 작용이 ㉠ 시점보다 더 강했을 것이다.

• 오답 해설

- ① ㉠(간빙기)에서 ㉡(빙하기)로 갈수록 기온이 하강하여 빙하의 부피가 증가한다. 빙하 부피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며, 가벼운 산소가 빙하에 더 많이 갇히므로 바다로 되돌아오는 양은 오히려 감소한다.
- ② ㉡ 시점은 최대 빙하기이므로 빙하가 팽창하여 가벼운 산소가 빙하에 갇힌 상태이다. 빙하가 녹아 가벼운 산소가 해양으로 유입된 것이 아니다. 유공충 $\delta^{18}\text{O}$ 값이 높아진 것은 해수에서 무거운 산소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③ ㉡(빙하기)에는 기온 하강으로 분별 작용이 더 강하게 일어나 극지에 쌓이는 눈의 $\delta^{18}\text{O}$ 값은 ㉠(간빙기)보다 더 낮아진다. 빙하 코어의 $\delta^{18}\text{O}$ 값이 ㉠ 시점보다 높을 것이라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이다.

- ⑤ ㉓ 시점에 유공충 $\delta^{18}O$ 값이 높은 이유는 극지의 눈 $\delta^{18}O$ 가 높아 서가 아니다. 오히려 극지의 눈 $\delta^{18}O$ 는 분별 작용이 강화되어 더 낮아진다. 유공충 $\delta^{18}O$ 값이 높아진 원인은 가벼운 산소가 빙하에 갇혀 돌아오지 못하면서 해수 자체에서 무거운 산소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4

• 정답 및 해설

- ④ 지문은 부당이득 성립 요건으로 1문단에서 “이득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이득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했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을 뿐, 이득자와 손실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5문단에서 갑과 병 사이에 계약 관계가 없음에도 예외적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직접적 계약 관계를 필수 요건으로 제시한 선지는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 오답 해설

- ① 1문단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손실자와 이득자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공평의 원칙에 근거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 ② 3문단에서 “갑과 을 사이의 유효한 계약이 존재한다면 ... 병이 얻은 이득은 ... 을과의 계약 이행에 따른 결과”로서 을과의 관계를 통해 법률상 원인을 갖게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 ③ 4문단에서 갑의 직접 청구를 허용하면 “자기 책임하에 계약을 체결한 갑이 계약 상대방인 을의 채무 지불 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제3자인 병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채무 지불 능력 부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 ⑤ 5문단에서 “병이 을과의 계약 관계에서 수리비 상당을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이미 보전해 주었다면 병의 이득은 정당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병이 대가를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의 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서술과 부합한다.

15

• 정답 및 해설

- ③ 3문단에서 법원은 “갑의 노무 제공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병이 얻은 이득은 갑의 손실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을과의 계약 이행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다. 제3자(병)의 이득이 계약 당사자(갑-을) 간의 의무 이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손실자(갑)의 손실과 제3자(병)의 이득 사이에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아닌 간접적 관계만 성립한다. 법원은 이러한 논리에 따라 손실자와 제3자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한다.

• 오답 해설

- ① 법원은 ㉓[전용물소권]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므로, 계약의 목적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

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법원의 태도와 반대이다.

- ② 법원은 손실자가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위험을 제3자가 보전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4문단에서 이러한 위험 전가를 경제하는 논리를 명시하고 있다.
- ④ 법원은 6문단에서 “법적 안정성과 계약 질서의 보존”이라는 상위 가치를 중시한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재산적 평등을 우선시하여 반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는 것은 법원의 태도와 반대이다.
- ⑤ 5문단의 예외 요건은 “병이 ... 무상으로 이득을 향유했으며,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무상 이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채무 이행 능력이 있다면 예외 요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으므로 전용물소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서술은 지문의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16

<보기> 설명

건설업자 A(갑), 건물주 B(병), 인테리어 업자 C(을)의 3자 관계를 나타낸 사례이다. A는 C의 부탁으로 자재를 납품하고 시공을 완료했으나, C가 B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뒤 도주했다. B는 C에게 계약에 따른 대금을 이미 전액 지불한 상태이다. 이 보기를 풀기 위해서는, B가 C에게 대금을 이미 전액 지급했다는 사실에서 B가 무상으로 이득을 향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파악하고, 지문의 원칙(전용물소권 부정)과 예외 요건(무상 이득 + 지급 능력 전무)을 적용해야 한다.

• 정답 및 해설

- ⑤ 보기에서 B는 C에게 공사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B는 건물의 가치 상승분을 “무상으로” 향유한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다. 5문단에서 예외적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생기려면 “병이 ... 무상으로 이득을 향유했으며” 동시에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여야 한다. B의 경우 무상 이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C의 지급 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B가 A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결론은 예외 요건의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 오답 해설

- ① A와 C 사이에 유효한 자재 납품 계약이 존재하므로, 3문단의 논리에 따르면 A의 시공은 C에 대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다. B의 이득은 A의 손실에서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C와의 계약 이행에 따른 결과이므로, B의 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② B가 C에게 공사 대금을 전액 지불한 상태에서 B가 얻은 건물의 가치 상승분은 C와의 계약 관계를 통해 법률상 원인을 갖게 된다. 3문단에서 서술한 것처럼 유효한 계약이 존재할 때 제3자의 이득은 손실자의 손실에서 직접 발생한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

- ③ 4문단에서 갑의 직접 청구를 허용하면 “병은 이중으로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위험에 처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B가 이미 C에게 전액을 지급한 상태에서 A에게 별도의 대금까지 부담하면 동일한 공사에 대해 이중의 지출을 강요당하게 된다.
- ④ 4문단에서 전용물소권을 허용하면 “자기 책임하에 계약을 체결한 갑이 ... 위험을 제3자인 병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A가 C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B에게 전가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17

• 정답 및 해설

- ⑤ ㉔의 ‘성립할’은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생긴다”라는 문맥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지다’의 의미로 쓰였다. ‘구비되다’는 ‘필요한 것을 갖추다’라는 의미로, 주로 요건이나 조건 자체를 갖추는 데 쓰인다. “부당이득이 구비될 여지가 생긴다”로 바꾸면, 부당이득이라는 법률 효과가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당이득 자체가 요건을 갖춘다는 부자연스러운 의미가 되어 대체어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 ① ㉑의 ‘지급할’은 ‘돈을 치르다’의 의미이고, ‘변제할’은 ‘채무를 갚다’의 의미이다. 수리 대금이라는 채무를 치르는 맥락이므로 대체가 적절하다.
- ② ㉒의 ‘청구할’은 ‘권리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다’의 의미이고, ‘요청할’은 ‘필요한 것을 부탁하거나 요구하다’의 의미이다.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맥락에서 의미가 유사하다.
- ③ ㉓의 ‘간주되기’는 ‘그렇다고 봄, 그렇게 취급함’의 의미이고, ‘의제되기’는 법률 용어로 ‘본래의 성질과 다르지만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함’을 뜻한다. 법적 맥락에서 병의 이득이 계약 이행의 결과로 취급된다는 의미이므로 대체가 적절하다.
- ④ ㉔의 ‘처한다’는 ‘어떤 형편이나 지경에 놓이다’의 의미이고, ‘직면한다’는 ‘어떤 사태에 닥치다’의 의미이다. 이중 지불 위험에 놓인다는 맥락에서 의미가 유사하다.